



## “파렛트 및 물류용기의 글로벌 New Trend를 헤아린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대외협력사업부 차장 김 윤 회

본 원고는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InterPack 2011”의 참관기입니다. (사)한국 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발전된 선진물류의 용기 및 포장의 흐름과 세계화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InterPack 2011”에 연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참관기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김윤회 차장의 5박 6일 간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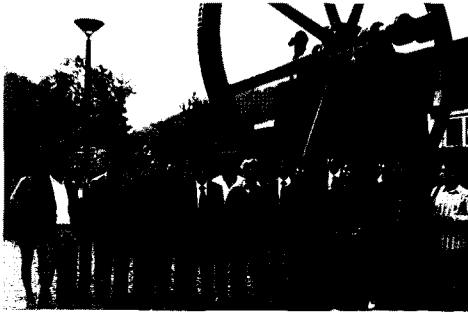
- 편집자 주 -

글로벌 시장과 물류산업계의 변화를 한 곳에서 맛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가치가 크다.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물류용기 합리화의 틀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첨단 물류용기 정보시스템과 설비 등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전시회를 참관하고, 선진국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물류와 포장의 New Trend 현장을 직접 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공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으로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InterPack 2011”과 유럽 리더너블 파렛트 시스템의 현장을 다

녀왔다. 연수단은 모두 21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모두 중요한 경험과 각자 업무에서의 커다란 성장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기획한 연수단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유럽파렛트협회(EPAL)의 리터너블 파렛트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InterPack의 참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물류연구소의 산실로 생각되어지는 Fraunhofer 연구소의 방문으로 기획되었다.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한 후 5월 12일 숙소인 하겐으로 옮겨서 진행된 첫 오전 프로그램은 옛 독일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산업발전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LWL(Landschaftsverband Westfalen-Lippe)는 곳으로 독일의 옛 생활방식을 더듬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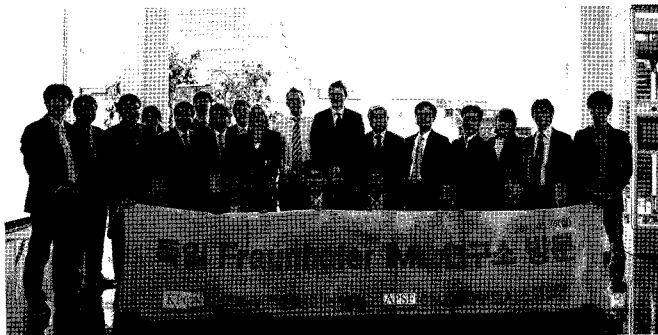
오전에 독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체험한 뒤 발길을 옮겨 오후에는 우리협회가 기획한 유럽파렛트협회(EPAL) Pierre Clenin 회장과의 Joint Meeting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럽파렛트협회(EPAL)는 유럽연합이 표준화된 규격의 파렛트를 가지고 국경에 상관없이 서로 리터너블 시스템을 이용한 파렛트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다. 연수단은 유럽파렛트협회의 Pierre Clenin 회장과의 격의없는 설명과 질문을 통해 우리나라 및 아시아에서의 일관 표준 파렛트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날 연수단은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InterPack 2011 전시장으로 향했다. 3년마다 열리는 InterPack 2011은 “물류용기 및 포장의 흐름(Process and Packaging)”을 기치로 물류용기 및 포장의 글로벌 트렌드와 첨단 물류용기 및 포장용기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명성 그대로 세계 최고의 물류용기 및 포장 전시회임을 실감할 수 있는 곳. ‘전세계 36개국 3,000여 기업 참가, 166,000여 명 참관’이라는 주최측의 발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 잡을 수 있는 세계최고의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Section 별로 이루어진 18개 전시관은 참관한 각국나라들의 눈길을 모으기에 모자람이 없었으며, 첫 날부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작된 우리 연수단의 일정은 각자의 업무와 비즈니스에 맞는 전시장을 쉬지 않고 찾아 3일간의 피곤함도 잊은 채 새로운 장비와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이번 행사를 준비한 협회가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으며, 이곳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노력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각자가 속한 기업들의 물류용기에 첨단 시스템으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을 믿게끔 해주었다.



연수단은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 국가 물류연구소인 Fraunhofer IML 로 향했다. 한국 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뒤셀도르프 Fraunhofer IML과의 사전 협약에 따라 Fraunhofer측에서 환영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VIP로 특별 대우를 받으며 다양하고 질 높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또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와의 인연을 계기로 맺었던 Fraunhofer 실험실에서는 세계 최고 물류용기 자동화 설비시설을 특별 참관하는 기회를 가져 많은 시사점을 찾았으리라 생각된다.





## InterPack 2011 연수를 마치면서...

한국 물류용기(파렛트, 컨테이너)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앞으로 추구하여야 할 가치는 세계적인 파렛트와 컨테이너를 이용한 선진 물류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동일선상에서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경제 및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있지만 물류용기를 통한 물류서비스의 현실은 아직 세계를 주도 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 과제이다. 물류의 기본 토대가 되는 파렛트와 컨테이너가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고 국가산업발전에 한 축이 되어야 함은 명확한 좌표이다. 따라서 물류용기의 일관된 표준화와 파렛트 산업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세계화 촉진에 이바지 한다는 확신과 자부심으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APSF(Asia Pallet System Federation)를 통한 아시아 파렛트의 표준화에 따르는 파렛트 리터너블 시스템의 선행 일 것이다. 파렛트 리터너블의 표준화는 1회용 수출 파렛트의 비효율성 제거는 물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게도 물류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독일 연수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이경호 회장님과 APSF 회장인신 서병륜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 사 속 >

마지막 날 모든 공식적인 행사와 일정을 마치고 독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뒤셀도르프 시내에서 행해진 유러비전 송 페스티벌에서의 “대 ~ ~한민국 짹짹짹”은 또 다른 추억으로 남기에 충분해 보였다.